

현대건설 000720

4Q22 Review: 발목 잡은 해외 일회성 손실

유틸리티/건설

Analyst 문경원, CFA

02. 6454-4881

kyeongwon.moon@meritz.co.kr

4Q22, 해외 사업 손실 인식으로 기대치를 하회

4Q22 연결 영업이익은 814억원(-57.4% YoY)을 기록하며 컨센서스(1,625억원)를 하회. 주요 요인은 해외 부문의 비용 처리. UAE 미르파 발전소 장기 미수금 대손 처리(판관비 약 500억원), 두바이 대관람차 수리비용(매출원가 약 200억원)이 발생. 국내 원가율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

2023년 해외 수주 2배 성장. 가시성 높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상향 기대

2023년 수주 가이드는 연결 기준 29.1조원(-17.8% YoY), 별도 기준 16.5조원(-16.7% YoY)을 제시, 이 중 별도 기준 해외 수주 목표는 5.7조원(+97.9% YoY).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추진하는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2개 패키지 합산 45억달러)의 높은 수주 가능성을 감안하면 보수적인 목표라는 판단. 향후 화공 플랜트에 더불어 네움시티 등 토목 수주가 본격화된다면 초과 달성 충분히 기대 가능

한편, 2023년 매출액 가이드는 연결 기준 25.5조원(+20.1% YoY), 별도 기준 13.4조원(+11.6% YoY)을 제시. 현대엔지니어링의 가파른 매출액 성장세가 눈에 띄는데, 2021~2022년 분양 물량 확대에 따른 주택 매출 확대와 함께, 사한 프로젝트와 계열사들의 미국 공장 착공에 힘입어 플랜트 매출도 증가할 전망.

시장 우려보다 제한적인 주택 사업 리스크, 해외 수주 통한 Upside 기대 가능

동사의 2022년 말 기준 PF 지급보증 금액은 약 1.58조원. 1)CJ 가양동 부지 등 수익성이 우수한 프로젝트의 비중이 높다는 점, 2)만기 도래 건들이 장기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점, 3)3.0조원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발 채무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

12개월 선행 PBR은 0.49배로 역사적인 저점.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우나, 이로 인한 2024년 이후의 실적 둔화는 기반영되었다는 판단. 상반기 중 해외 수주가 가시화된다면 충분한 Upside를 노려볼 수 있는 주가 수준. 건설 업종 내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

표1 현대건설 4Q22 실적 Review									
(십억원)	4Q22P	4Q21	(% YoY)	3Q22	(% QoQ)	컨센서스	(% diff.)	당사 예상치	(% diff.)
매출액	6,083.5	5,180.5	17.4	5,430.8	12.0	5,651.4	7.6	5,523.1	10.1
영업이익	81.4	191.3	-57.4	153.7	-47.0	162.5	-49.9	177.8	-54.2
세전이익	-134.9	234.5	적전	349.1	적전	117.9	N/A	235.4	N/A
순이익	-118.9	126.3	적전	201.0	적전	68.5	N/A	143.4	N/A

자료: 현대건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